**5월 26일 제19차 단운위**

출석 - 회장, 부회짱, 악반, 알반, 나침, 한길, 한음, 겨레반, 꼼반,

한음반 – 안건지 오타 발견!

회장 : 보고안건, 단위보고 생략.

바로 논의안건으로. 3일 전에는 단학대회 발의… 월요일이어서 오늘 금요일 날 회의하기로 함

경제 D반 TF구성안이 별첨 1에 있다. 교자팀장(부회)님이 발제.

부회장 : 별첨 1-1인 순회토론에서 제공, 1-2는 D반 만든다고 했을 때에 중장기적인 논의안.. 읽어봐라.

회 : 별첨 1-1까지 읽었나요

한음 : 일정표 말이지요.

회장 : 지금 경제학부 학생회장이 안 오신 상황이어서 우리 맘대로 할 수 없다. 순회토론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싶다.

부회장 : 어제 그 경제반 3반 통합한 토론을 거치고 나서. 왜 이게 출발했는지 브리핑하고, 과반체제 재편한 이후의 중간평가 진행. 새맞이와 반 이후의 평가들을 내려봤고, 전반적으로 반마다 차이가 있긴 했지만, 인원수가 늘어난 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정적 평가는 있었는데 나아진 것 없다. 반에서 참여하는 사람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절대적인 수는 똑같은데, 비율은 주니까 전체적으로 적다. 과방에 대해서 넓다 좁다 와 같은 의견들이 있었다. 반이 파편화된 개인들과 같다. 조그마한 그룹들끼리만 모여서 논다. 현 체제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인 평가가 나아진 점은 별로 없고 나빠진 것 같다. D반 신설 안에 대한 장단점을 나눠보았다. D반에 대한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길 입장) 좀 많이 나왔던 게 D반 나오면 어떻게 할꺼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지만 고학번들은 과방 활동에 최전선에서 멀어지고 있고, 그래서 17이나 16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적다. 경제학부 출신 사람들이 적고 경제학부 아닌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충분치 않다. 공론이 이루어 지는 점에서 … 경제학부 생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참여를 이끌어야 하나.

악반 : 순회토론 얼마나 왔나?

부회장 : B반 15명 A반 10명 정도 C반은 10명 안되게. 반 내부에서 참가자 수는 문제되지는 않았다.

한길반 : D반 신설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끼는 학우 있다는데 어땠냐.

회장 : 꼭 D반이 되는 아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의견 내놓음.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논거를 제외하고는 그 자리에서 D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회장 : D반이 자치활성화에 필요하지 않을까… D반 TF를 안으로 냈는데, D반 구성 TF이외에 다른 가능성을 염두해봐야 되지 않겠다. 발제하신 학우가 아직 안 왔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자.

회장 : 다 읽어 보셨나요? 일단 김상연씨의 의견서에는 D반 신설이 왜 어려운 지와 그리고 D반 신설의 필요성을 집행부 내에서 제시했던 근거들이 모호했다는 점, 그 D반 신설이 학생 자치의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한 안으로써 제시되었던 건데, 반을 하나 신설할 정도의 큰 사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 학생들의 평가가 부재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하면은 과반 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논의를 진행 하기가 애매한데… 근데 김상연씨가 제시한 의견서 같은 경우에는 D반 신설의 반대 이유가 나와있는데, 집행부 내에서 제시한 안은 D반을 만들다 면은 준비를 1학기 때부터 시도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5월 말부터 D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D반 준비 TF를 제시한 것이고 그래서 뭔가 D반을 신설하자, 아니다라는 대립구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김상연씨의 안을 확장시켜 보자면, D반을 신설하는 것 이외에 보완책을 학생회 내에서 생각해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 어느 정도는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지난 단운위에서 경제학부 반 내에서 논의가 안되고 있다던가,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에 D반 신설의 가능성만 고려 하는 것도 좀 자치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김상연씨의 의견서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악반 : 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단학대회 안건으로 두개가 올라온 건가요?

회장 : 단학대회 안건으로는 첫 번째 별첨 1이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서로 지금 D반 진행와 관련된 카드뉴스 등을 보시면서 김상연씨가 의견서를 제출 한 것입니다.

악반 : 그러면 저희는 뭘 하나요?

나침반 : 제 생각에는 단운위에서 안건을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안건을 발의 할 지를 정하면 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던 단운위에서 발의를 해달라고 했던 안건들을 수정하거나, 같이 살펴보자고 말씀을 하신 것 같다.

회장 : 여러분이 일단은 이 의견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 두 안을 합치든 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견서 필요 없다고 하면 그냥.. 일단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이랑, 본인이 쓰신 안이랑 비교를 해보았고, 김상연씨가 쓰신 안이랑 단운위에서 공감하는 지 확인 중이다. 다음에 수정안이나 그런 걸 논의하려고 합니다. 질의 있으면 바로 하시면 돼요.

악반 : 질의인데요 상연 맨 마지막 페이지에, 3년의 과도기를 이끌어갈 주체 구축이라고 써 있는데 이 과도기가 무엇인지..?

상연 :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한 학년이 50명인데 바꿔가는 시기이다, 과도기다라고 표현 하셨길래, 위에서 표현했다 시피 반에서 제대로 잡으려면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런 의미해서 사회대 학생회가, 경제학부 과 내에 정말 체계적인 조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면 경제학부 지원에 대한 3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집행해야 한다. 엄청 구체화된 계획은 아니고, 경제 D반을 만드는 거에 비해서 차라리 역량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제안. 사람이 없는 게 문제지 뭐…

악반 : 자치 공간의 확충이 난감하다는 부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지금 방을 못 구한다면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동의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회장 : 제가 제안드리는 반은 일단 집행부에서 제시안 안이 김상연씨의 안과 상관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D반을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물론 김상연씨의 의견서에는 D반 구성 TF자체가 D반으로 가는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D반을 만약에 신설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D반 구성 TF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제시를 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듯이 D반 이외의 과반, 모든 과반의 자치 활성화를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제안 드리는 반은 별첨 1에 나와있는 경제D반 신설을 위한 TF구성 안을 뒤에 있는 과반 특위 구성으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특위를 여기 설명문에 보면 D반을 시도해볼 필요성만 나와 있는 건데 이제 다른 보완을 마련할 필요성을 섞어서 말한 다음에, 과반 특위 그리고 밑에 보면 새맞이 기간 전까지 새로운 구성원들과 외포를 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공간문제와 과방의 문제 들의 과정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자. 과반 특위에서 D반 신설 가능성도 검토하면서, 기존의 과반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들도 검토하는 그런 사안으로 바꾸면 어떨까 제시한다. 그러니까 과반 특위라는 명명을 지은 다음데, 팀을 두개를 두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반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는 것과, D반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악반 : 이게 연구팀이 아니라, D반 구성TF는 D반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과반 특위는 과반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데, 그러면 D반 구성 T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연구인지 친목인지 무엇인가? 저는 D반 구성 TF를 친목을 위한 것이었는데 과반 특위는 연구 같다.

회장 : 의견서에도 보면 D반을 신설하는데 친목 위주로만 나와있고, 그 전에 과반의 전통을 만들어나가던가, 공간을 확보하던 지와 관련해서 애매하다는 측면이 나와있다. 그래서 D반 구성 TF가 친목과 외포 형성에 그치지 말고, D반을 자원하고자 했던 사람들과, 집행부에서 D반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D반을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침반 : 제시해주신 안에 대해서 제 의견은 단학대회의 의결이 없다. 단학대회에서 확인한 것은 무엇인가 의문. 의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반 특위는 D반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올 수 없다고 본다. D반 신설에 관련해서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과반 특위와 상반되서 이것을 의결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본다. 그것을 단학대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차라리 과반 특위에서 D반의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 되지 않냐고 본다.

??? : 상반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침반 : 의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반 특위는 기본적으로 과반의 재생산 위기를 인원에서 파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D반을 놓고, 그것을 위주로 과반 재생산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은 실효성은 없고 더 이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 지점 안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과반의 위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과반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과 경제 D반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단학대회에서 의결한 것은 무엇인지.. 가령 여기를 보면 이번 단학대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과반의 정치적 무기력과 과반의 재생산 위기에 대하여 공통으로 확인하고 과반 특위를 설치하자,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확인된 상황에서 과반 특위를 발족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전 단학대회에서 어떤 방향성을 의결하는 것인 것 모르겠다. 논쟁점이 없는 안 아닌가.

회장 : 그러면 나침반 학생회장의 경우 별첨 1이나 별첨 2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요?

나침반 : 저 같은 경우에는 별첨 1이나 2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 보다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합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본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의 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둘은 같이 갈 수 없다고 본다. 여기서 같이 하는 것은 D반을 추진하는 틀도 다르고, D반을 실행하는 의식이 잘못되었다는 가정하에 팀도 만들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이 같이 갈 수 없다고 본다.

회장 : 이제까지 논의해온 방향이 D반의 신설을 염두 해두고 논의해 온 건데, 순회토론 등등도 이래서 한 것인데..

나침반 : 그래서 단운위원들이 얼만큼 이것에 동의를 하는지라던가, 그게 공고히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을 발의할 정도면. 만약 판단하기에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D반 필요성을 학생사회에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D반 신설 안을 단운위원들이 발의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아닌 것이다.

악반 : 저는 그 두개가 완전 상반된다고 생각을 안하는 게 과반특위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를 생산하고 주체들이 활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정도라고 생각한다. 경제 D반을 만들어서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김상연씨는 굳이 경제 D반을 왜 만드냐, 그것보다 문화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셨지만, 경제 D반도 만들고 문화도 키우는 것 둘다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서 둘이 같이 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제가 김상연씨의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 지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원이 많은 것에 반대한다. 친목이 어렵다에 동의하는 편이다. 그래서 전통과 문화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지 한음반과 꼼반의 예시를 주셨지만, 악반의 경우 많이 사라졌고, 사회대 학생회에서 과반특위를 만들어서 추진 한다고 해도, 악반을 바꾸기 어렵다. 이건 자연스럽게 생길 문제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본다. 50명이 같이 지내는 것 보다 30명이 같은 반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접촉도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통과 문화가 생각나도 본다. 50명인 지금 더 파편화가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크다. 그래서 경제 D반을 저는 어느정도 찬성하는 바이다.

회장 : 그러면 이 두 안이 같이 갈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김상연씨의 생각은 어떠하나요?

김상연 : 전 이안은 경제 D반을 만들지 말자는 안이고, 이 두 안을 합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 D반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전체 학생사회의 평가 없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없고 오직 추측만 있다. 오직 실무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이 만나기 힘들다만 있다는 거지, 과거에 인원이 많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다른 단과대 중에 사람이 많은 과들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고, 적었을 때엔 잘 되었나, 파편화 안 되었나에 대한 평가나 성찰이 없었다.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과 평가가 없이는 경제 D반을 만들기 위한 문제의식이라고 받아드릴 수 없다. 그래서 과반 특위의 핵심은 그러한 어떤 전반적인 점검과 사회대 학생 사회에 과반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이루어져있고, 학생회에서 의결하면 그냥 하라고 전달 되는 것이 다이다. 과반 들의 구체적인 상태와, 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망했냐, 왜 망했냐에 대한 분석이 없다. 그래서 사회대 학생회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런 문제로 D반이 필요하다고 도출되는 것이, 이런 문제라고 예상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본다. 실제로 인원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과반 특위를 구성해서 분석을 해서, D반을 만들은 경제 ABC반 반을 쪼개든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D반을 추진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고, 조건적인 문제라던지 정치적인 문제가 산존한 상황에서 추진의 근거를 사회대 학생회가 학생사회를 평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다. 먼저 왜 망하는지 분석을 해야 한다.

알반 : 확실히 인원수가 아니라 다른게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실증적인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단학대회에서 D반의 필요성이 있다고 열어놨다. 그때도 상당히 많은 인원수의 사람들이 과반의 인원을 지적했다. 과반의 인원이 달라진 것이 올해인데, 지금 자료를 모으는 것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인원수를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는 것은 인원수의 문제가 공감대를 사고 있다고 보고,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만약에 인원수가 문제였으면 인원이 많다는 게 해결될 것이 아니니까, 이번 새맞이를 보겠다는 것 역시 위험한 생각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음반 : 저도 이게 합쳐질 수 없는 안이라고 봐요. 만약에 D반 TF가 생기면 계획에서 되게 많은 것을 하고, 기획자체가 D반을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고 이 계획이 진행이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TF가 만일 생기면 D반을 만들어 지는 것으로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저는 D반을 신설하는 것에 동조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저는 한번도 대규모의 새맞이를 진행하거나 기획해 본적이 없어서 의존하는 근거가 사회대 학생회장단들의 경험,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 준 자료들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해 본 것이 없어서, 그 사람들의 말만 들어보면 필요한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런 맥락에서 고민을 했었다. 그리고 제가 대놓고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 그런게 경제학부 당사자들의 일이니까 동의하는 맥락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경제학부 분들이 있으셨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가 그렇다고 본다. 당사자가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다.

나침반 : 저는 그런 상황이 문제적이라고 느껴진다. 그 부분에 반해서 경제학부의 맞기자 이상으로 토론이 이루어 진 것 같지 않다. 한음반 학생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D반을 만들어 질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려스럽다. 예를 들어 D반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추진 해놓고서, 하반기 단학대회에서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사회대 학생 사회에서 역량을 그때까지 투입을 할 껀데, 그 주체들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없고, 주체한테 그렇게 (D반을 무산시키는 의결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과반, 학생사회에서 경제학부 학생들이 생각하고 궁금한 것 이상의 토론을 해본 것이 없다. 그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게 인원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로 표상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견서가 담고 있는 것들이 더 크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이제 인원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라는 것이 학생사회 파편화의 여러 병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원일 수 있으니까 인원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반을 만들어 보고, 다른 병렬적인 이유들을 같이 해결해보면 어떨까요로 퉁쳐질 수 없다고 본다. D반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무게를 알아야 한다. 거리감을 만든다던지, 그 주체를 만들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를 따져야 한다. 100명의 학우들을 학생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문제가 산재하고 있는데 D반도 해보고, 다른 해결방안도 모색해보자. 이럴 수는 없다고 본다.

한음반 : 저도 많이 공감이 간다. 논의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맞는 말이고 의견서의 내용이 많은 생각을 불러오는데, 사회대 학생단가 회장에게 미안한 점이 있다. 저희 반에서 의견 수렴을 하거나 토론을 해야했는데 그러한 점이 미흡했다.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도 있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경제학부 반들의 토론이 가장 늦게 이루어 졌는데, 다른 반에 가면 경제학부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런 점들이 겹쳐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침 학생회장의 말과 같이 단학대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성급할 수 있다. 누구의 실책이라고 보기 보다는 상황적으로 된 것이다.

부회장 : 제가 있는 집행부와 같이 이 안을 준비했었고, 제가 나름 책임을 지며 순회토론을 돌았는데, 김상연씨의 의견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을 말해보겠다. 저희도 준비하면서 시야가 좁았던 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음반에서 말씀하면서 느꼈던 점은, 토론을 돌면서 경제반에 맞겨야 한다고 토론이 끝나면 안된다는 점을 느꼈다. 그런데 다른 반들 가서는 토론이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기는 점들이 있었다. 작년에 분비했던 것과 같이 어느 정도의 기반이 남아있는데, 기반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학생 사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의 원인이 인원수 증가만이 아닐 수 있었는데, 이 점들 외에 다른 점들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채 논의가 이루어진 점을 인지한다. 지금 이 바탕으로 무슨 안을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이 안난다. 그러나 지금 이런 논의나 순회토론을 거치면서 생각하는 점은 체제개편의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 그게 D반을 만들자는 이유였고, 김상연씨의 보고서에서도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학단식까지 이 논의의 출발이 거슬러 올러갈 수 있을 것 같다. 인원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부담은 별로 안 느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경제반에서는 부담을 느꼈다는 점에서 이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이다.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때 학단식 때 했었던 중간평가 보다 발전된 제대로 된 체제 개편을 이은 평가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리하자면 작년의 의결로서 D반이라는 선택지가 제시되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달리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제 좀더 넓게 바라보면서 중간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두 안에서 공통적으로 남길 수 있는 점이 이게 아닐까 싶다.

회장 : 지금 어쨌든 합칠 수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둘에 대한 찬반 논의를 한다음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표결을 하면 의견서의 내용이 의결안이 될 것 같다. 여기서 의결안이나 원안을 올리는 것이 될 것이다.

나침반 : 지금 확인되는 것들이 D반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당장 월요일 단학대회에서 D반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 적극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과반특위를 설치해 보는 것이 어떻냐고 생각한다. 과반 특위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D반을 포함한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물론 과반 특위를 설치하면서 D반을 설치하면서 과반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점이 문제라는 점에서 시작했다는 점이 문제적이고 맞지 않다는 방향성에서 나온다. 그러나 D반에 대해 논의해본 점, 그리고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과반특위의 문제의식이 D반을 설치하지 말자라는 점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D반 설치를 위한 실무기구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D반 설치를 위한 실무기구는 앞에서 말한 이유들로 지금은 설치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과반 특위를 설치해서 D반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두고, 학생사회에 대한 평가를 우선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D반과 관련해 대중 토론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실무적으로 D반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먼저 만드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과반 특위를 설치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하반기 단학대회에서 D반 설치가 너무나도 시급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안건이 될 수 있겠지만, 그 활동을 근거로 하반기 단학대회의 안건으로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반기 단학대회에서는 여기 적혀 있는 바와 같이 현재 과반의 어떤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고, 그걸 타계하기 위한 과반 특위를 설치 해서 사회대 학생회가 전력을 다해서 이것을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안을 올리자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한음반 : 저도 이 점에 동의한다. 상연씨가 써온 글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경제학부 차원에서도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학생회 전체 차원에서 심도 있는 학생 사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장 월요일 단학대회에서 D반 구성 TF를 발제 할 수 없는 것에 공감을 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게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과반 사회가 심각한 문제냐 싶다. 경제학부에서 사람이 많아서 파편화 되고 있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다른 반 학생회장들은 경제학부 문제인가 보지 생각해보고 그 정도로 문제라는 공감대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과반 체제의 위기를 지적하는 것이 합당한 면은 있지만, 이정도로 위기인 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는 점은 이 글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등등, 공감하는데 한편으로 어쩌라는 생각이 든다. …. 행위자가 있으면 행위자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라면은 과연 해결할 수 있겠냐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도 우리가 춤을 출 수 있고, 역량을 배분할 수 있다면 D반이 아닌 과반 TF를 구성해서 담론을 생산하는 것이 더 건강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도 잘 될지는 모르겠다.

회장 : 의결안이 과반 특위를 만들거나,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에서 끝나면 안되고, 과반 특위가 적극적으로 경제학부 과반들의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TF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끝 할 게 아니라 말이죠.

한음반 : 되게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과반체제 운영 방식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다른 반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겨레반 : 겨레반에서 느끼는 것은 매년 학술제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가 과장을 할 때에 겨레반의 가장 큰 자랑이 학술제었는데, 제가 사회대 학생회를 하고 겨레반을 가보니까 겨레반 학술제가 잘 안된데요. 자기네들 노는 것만 하려고 하고, 인력이 줄고, 학회장이 안나온다 뭐라고 하는 거에요. 이게 3년만에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증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과반이 축소 재생산 하고 있는 게 있는거고, 겨레반이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학술제가 무력화 되는거고 축소 재생산 되고 있다. 이게 전반적인 기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제가 느끼기에 꼼반에서 소모임을 엄청 많이 지원 하시던데, 이게 학회를 어느정도 대체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소모임이 성공한 걸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과방에서든. 소모임이 1, 2년 있다가 다 망했지 소모임 개발 노력은 1학년부터 있었는데 3학년때까지 지속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다가, 친한 사람들 군대가면 끝나버리는 것이 소모임의 운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과반 내에서도 어떤 공동체들이 있어야 하는데 소공동체들이 사라졌다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5년 동안 인상과 경험을 통한 평가지, 사회대 학생사회가 경험했던 것을 토론해서 이루어진 평가가 아니고 이런 역할들을 과반들에서 해줘야 한다. 그러면 소모임을 우리의 대안으로 제시를 하든, 제가 썼던 것과 같이 사회대 학생회장 하면서 학과 정체성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건데, 그러면 적어도 고학번이든 누구든 수업 같이 듣는 사람들을 과에서 묶어주면 그러면 고학번도 좀 붙잡을 수 있고, 다른 대학들에서 볼 수 있듯이 복학생들이 과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학과 수업을 어떻게 듣고 하고 한다던데 우리가 그간 사회대에서는 광역생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D반 안에는 이런 평가들이 반영이 안 되어있을뿐더러 역행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제기했던거고, 모든 과반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했던 것은 이거고, 자랑하고 한탄하고. 그런데 다른반에 비해서 이런 것은 안되고. 이런 것이 혼재되면서 과장의 개인의 역할로 다 부여되니 다른 반이 잘한 것을 올해 우리반에 와서 해보자고 하면 자기가 의지 없으면 망하고, 자기가 의지 있으면 혼자 하다 망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사회대 학생회에서 체계적으로 하시는게 필요하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저는 실제로 ?? 개생산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물론 모든 과반이 다 안됐다는 거가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잘되는 반들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확실히 그것이 축소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제가 그냥 경험으로 느끼는 것이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하면 되고, 문제 있으면 안 하는 건데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 : 그러면 계속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겠는데…

악반 : 저는 D반 구성 TF를 만드는 것에 찬성하는 바이고, 저는 과반 활동이 축소되는 것에 동의 하는 바입니다. 그게 전반적인 기류라는 것도 동의하고 저희반도 개인주의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사실 예전 학생회 자료라던지 보면 되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잘 돌아갔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잘 돌아갔었는데, 뭐 사람이란게 바뀐건지 학술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많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신자유주의 때문인지 취업걱정 때문인지 각자의 삶이 바쁜건지, 동아리로 다 찾아 떠나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과반이 뭘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반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좋은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앞으로 사회대 학생회가 D반을 만들은 안 만들든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D반을 작년에 나왔는데, 이걸 또 한번 논의를 죽이고 과반 특위를 하기에는 거기에 그만큼 동력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이다. 또 약간 논의가 반복될 것 같고 D반 논의가 도는 경향도 있었고, 오히려 과반 특위가 끝나고 논의가 활성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분명 이부분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게 대안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경제 D반 구성 TF를 만들어봐서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추진력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경제 D반이 생기고 안생기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반활동이 축소되는 전반적인 기조는 D반을 만들던, 안 만들던 저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보고, 그건 장기적인 문제를 두고, 경제 D반을 만들던 안 만들던 인원수를 줄이는 것 밖에 차이가 없다고 본다. D반을 만들어서 인원을 적게 하면 많이 접촉하면 친해질 기회가 많고, 같이 할 기회가 많아질 것 같다. 50명이다 보면 안 그래도 사각지대가 훨씬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새맞이 할 때도 소외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제 D반을 만든 후에도 과반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논의는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앞에서 두 안이 합쳐질 수 있다고 본다.

겨레반 : 근데 지금 경제학부 반이 50명인 상태에서 잘 운영할 방법은 없을까 검토하는 것과, 일단 한번 경제 D반을 만들어보자 이 둘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 사이에서 저는 전자가 낫다고 본다. 만약에 D반에서 나오면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 사람들과 ??? 그 위험이 너무 크지 않느냐. 당장 또 올해 TF를 구성 해봐서 그 사람들끼리 잘 해보게 하고, 으쌰으쌰 하더라고, 1, 2년후에 망하는 것은 너무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니까, 지금의 담론/공론 생성 수준에서 D반을 만드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번 단운위때 사실 좀 더 경제학부 과장님들에게 쓴 소리를 하려 하다가 참았는데, 단학대회가 일주일정도 좀 쌔게 말 할려고 했었는데 너무 안일한 상황 인식을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일단 지금 단대에서는 TF구성은 난감하다.

회장 : 겨레반 학생회장님 뜻은 과반 특위가 구성된다면 적극적으로 경제학부 과반과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거 아닌가요? 과반 특위가 경제학부 반들 구성원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고,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겨레반 : 네 맞습니다.

한음반 : 저도 좀 TF도 난감하는 것을 동의하다. 이 상황이면. 전 또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닌 것 사실 사회대 전체 일도 맞고, D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그 논의를 할 때에 논의의 근거들이 경제학과 과반들의 경험해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다른 과반들이 뭘 해봤겠습니까. 해본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럼 논의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경제 ABC반에 나오던가 다른 반의 경험에서 가져와야 하는 그런 것이 없다. 과거에 룰루반과 랄라반을 쪼갠 거라던가, 아니면 과음반 신설 되라던거던가, 사회대 학생회 쪽에서 발제된 것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이걸 만든다는 것이 전례가 없었던 것이 맞고, ABC반에 저에게 주는 경험적인 것이 빈약한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이제 만약에 ABC반이 생각이 아예 없는 느낌이던지, 생각은 있는데 장이 잘 안만들어져서 표출이 못 된 것인지…

부회장 : 제가 어제 토론회를 가서 느꼈던 점은 그 경제학부 구성원들이 꼭 D반이 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지만, 인상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고, 그런 점에서 볼 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답이 꼭 D반은 아니다. 경제 D반을 꼭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되고 있다는 점은 경제학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한음반 : 그런 상황이니까 단학대회에서 표결을 하거나, TF를 한다고 치면, 그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다. 찬성을 하기도 근거가 부족하고, 반대를 하기에도 근거가 부족하고, 기권을 해야 하나, 근데 그건 이상하다.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알반 : 혹시 과반 특위가 구성 되면, 거기서 D반 신설이든 아니는 여러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솔루션이 지금은 적어도… 그러니까 D반도 지금 빠르게 논의도 하고 단운위도 잡히고 한 것이 이렇게까지 해야 새맞이에 적용할 것이면 이정도 해야 해서 나온 것 같다. 그런데 과반 특위로 바뀐다고 하면 내년이 지나야 솔루션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부회장 : 저는 이걸 뭐 김상연씨가 제안한 사안이… 제가 생각하기엔, 집행할 때에는 상황을 그려보면, 겨울에 했던 학관 수여제, 노하우 전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반별로 잘되는 점 안되는 점을 수합하고, 소모임의 경우 잘되는 소모임도 있고, 전반적으로 안되는 것 같지만 이걸 전반적으로 조합을 하면 다양한 결실들이 맺어질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크든 작든 간에 당장 내년에 적용되는 간에, 학생회장의 임기 잔여기간에 따라서 올해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장 : 일단 D반 신설 뿐만 아니라, 다른 보완책에 대해서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그래서 과반 특위가 지금 당장 D반을 신설하지 말자는 의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에는 그걸 막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과반 특위를 통해서 지금 과반의 위기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그 대안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더 깊게 논의하는 기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길반 : 노하우도 사회대 안에서만 논의되는데 그게 강화되야 할 것 같은게, 지금 인원수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근거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그럼 다른 대규모의 공동체를 조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게 문제인지 파악하고 조사를 해보려면 다른 단과대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사해보자. 거기의 공동체가 파편화 되어 있는지 아닌지 본다면 거기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넒은 체계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쪽에 인원이 많은 공동체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는 파편화되어 있고 인원수가 중요하다고 느끼면 D반을 다시 와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자치공간 확보의 문제를 지금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TF팀이 운영을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9월 전이나 이내, 빨리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TF팀이 당장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난망 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거에 대한 분석과 그 외에 많은 정치적인 문제들, 왜 이렇게 공동체가 파편화 되었고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 더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회장 : 어느 정도 의견을 공유한 것 같아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면 이제 선택 표결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악반 : 선택표결을 하면 두 개중에 하나를 할 것 같은데 그럼 이 글이 그대로 올라가나요?

회장 : 그 일단은 김상연씨 글 같은 경우에는 의견서를 냈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좀 과반특위를 살리면 되지 않을까요? 과반 특별위원회 설치 건. 그리고 의견서를 쓰게 된 계기 삭제하시고, 경제 D반 신설안의 조건적 문제에서 셋째줄까지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좋으시면 놔둘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일단 과반 특별위원회 설치 건으로 명명하고요 일단 첫번째 원안은 경제 D반 TF구성이 아닌 거죠?

??? :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안건은 나중에 표결 하는 건가요?

회장 : 문장 좀 다듬고…

??? : 이 글은 경제 D반이 필요 없다는 취지에서 쓴 것이 잖아요? 그런데 경제 D반의 가능성을…

부회 :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경제 D반을 신설함에 있어서 학생 사회의 평가 부재가 핵심이라 생각한다. 계속되는 논의를 지켜봤을 때에 문제 의식의 측면이 있고 대안의 측면이 있는데 저는 논의하다 보면 경제 D반이 나쁘지 않은 대안으로 생각하는데, 이정도의 논의 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 의식을 남기려고 하는지 부족하다는게 여기서 논의되는 것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이 중심으로 안건을 발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D반 신설을 조건적인 역량 보다도, 하반기에 임시 단학대회라던지 통해서 과반특위를 만드려는 핵심적인 이유가 중간 평가와….

??? : 저 질의 있는데, 결국에 경제 D반에 대한 논의는 결국 학생사회의 평가가 부재하기 때문에 과반 특위를 열어서 좀 더 연구한 후에 결론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번 단학 대회도 비슷하고 지금도 그렇게 가는건데.. 그리고 구체적인 타임라인 같은 건 없나요? 아까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 같은거… 한길반 학생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방학 때까지 연구를 해보고 D반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9월에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회장 : 과반 특위의 구체적인 상과, 방학 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침반 : 그건 올리면 되는 건데…

(안들림 잡담….)

나침반 : 저는 그래서 평가가 부재했다. 하자 가 아니고, 과반의 정치적 위기를 공동으로 확인을 해야지 단학대회의 연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반성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 악반 학생회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작년 사회대 학생회에서부터 D반을 만든다는 것을 들었지만 저는 사회대 학생회에서 논의를 정치적으로 해본 바가 없다. 작년에는. 과반체제가 개편됨에 있어서 그 토론이 없었던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 안의 문제를 과반 재생성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에서 본다. 그 정도를 하고, 이걸 전력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단학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해줘야 단학대회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회장 : 표결 진행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분들 안건지 들어주세요

1안 찬성 : 꼼반, 악반

2안 찬성 : 회장, 부회짱, 알반, 나침, 한길, 한음, 겨레반,

회장 : 9단위중에 7단위의 찬성으로 2안이 단학대회로 올라가게 되었다. 사전에 D반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의 논의 결과를 이어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D반에만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해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수 : 괜찮습니다.

회장 : 순회토론까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